

일부 남자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의 관계연구 *

주혜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전공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 and Smoking of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Hae Gyoung Ju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8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는 담배의 해독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차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성인 남자 흡연율의 증가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아직도 급속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서 일(1988), 이혜숙등(1989)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1988년 23.9%, 1989년에는 32.0%로 조사되어 1년동안 약 8%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3년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왕기등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무려 55.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이 그대로 성인의 흡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로, 많은 내면적 갈등들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치열해져가는 입시경쟁과 입시제도 위주의 교육과정등에 의하여 스트레스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사용하는 대처방안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 적극

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흡연행위와 같은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원호택, 이민규, 1987)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하나의 대처행위로서의 흡연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의 흡연동기의 연구에 있어서도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동기중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유가 명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이혜숙등, 1988)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그 올바른 대처방법의 결여가 파생적인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 제도나 정규 학교 과정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론적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배양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적 기술발달의 함양등과 같은 영역은 거의 무시되고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은 장기간 흡연 후의 건강의 위해성을 전달하여 흡연에 대한 지식의 증가나 태도의 변화만을 유도하는 방식만이 일관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발달론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생활변화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 대처행위로서의 흡연의 관계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사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둔 청소년의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전략에 기초를 제공하고 자 한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임.

2. 연구의 목적

1) 궁극적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과정의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정도, 내·외 통제소재, 또래 영향과의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하여 흡연예방 보건교육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2) 구체적 목적

- 가) 각 영역별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도, 심각성 인지정도와 흡연정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나)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도, 심각성 인지정도와 내·외 통제소재, 또래 영향, 흡연정도의 다섯 가지 변인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3) 연구 가설

- 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를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할 것이다.
- 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를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흡연빈도, 흡연량, 흡연의도는 증가할 것이다.
- 다)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도, 스트레스 생활사건 심각성 인지정도는 통제소재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 라)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도, 스트레스 생활사건 심각성 인지정도는 흡연친구수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 마) 스트레스 경험도,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 통제소재, 흡연친구수는 흡연정도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II. 문헌고찰

Cervantes와 Castro(1985)는 스트레스-대처과정의 관점에서 다변수 스트레스 대처 모형 (multivariate stress-coping model) 을 제안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의 예측이나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구성요인을 보면, 1) 잠재적 스트레스(Stressor)의 발생- 파괴적인 생활사건 변화 2) 스트레스의 인지 - 주어진 스트레스(Stressor)와 관련된 조절기능의 상실이나 위협정도 3) 내적 매개요인의 효과 - 사회문화적 신념, 태도, 가치 4) 외적 매개요인의 영향 -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이나 지지도, 친구, 중요한 지역사회 시설기관 5)

인간의 대처반응- 흡연, 그 밖의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6) 단기결과 - 대처반응에 작용된 결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기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7) 장기결과 - 대처과정후에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는 중독, 우울, 폐암, 정상회복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변수 모델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Castro 등(1987)은 13-15세의 청소년 810명을 대상으로 특정한 5요인, 즉 파괴된 가정적 사건(잠재적 스트레스(Stressor)), 스트레스 인지 (평가), 사회적 동조성(내부적 매개요인), 또래 영향(외부적 매개요인), 흡연(대처반응)을 선정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Bonaguro(1987)는 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 흡연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이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가정존중감, 또래존중감, 그리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증후군을 포함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흡연자들이 자아, 가정, 또래존중감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스트레스 증후에서는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함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이 흡연에 영향을 주므로 학생들이 인생의 초기 전환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Botvin과 Anna(1980)의 연구에서는 8, 9, 10학년 을 대상으로 포괄적 심리사회적 흡연 예방프로그램의 효능을 검증하였는데, 검증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사회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자기 신념, 자기 존중감, 자율성을 증가시키도록 도와줌에 의하여 흡연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압력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시키며, 학생들이 사회적 불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하며,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장·단기 결과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이 내용을 포함한다. 프로그램 시행 직후의 조사와 3개월 후의 조사에서 모두 비교그룹 보다 프로그램 참여그룹의 학생들이 유의하게 새로운 흡연경험자가 적었으며, 6개월후의 검증연구에서는 흡연경험자의 발생율을 거의 7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흡연동기에 있어서 이해숙등(198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호기심으로(36.4%)가 제일 많았고, 다음이 스트레스 해소(31.8%),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18.2%)순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호기심으로(3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29.3%), 스트레스 해소(25.8%) 순이었다.

Clarke등(1982)은 흡연과 내·외 통제소재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통제소재와 흡연빈도와는 상관성이 높으며, 통제소재는 흡연시기와 관련된 유의한 요인으로 보고 특히 내적 통제소재를 가진 사람이 최초의 흡연으로부터의 기간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짧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흡연자가 유의하게 다른 그룹보다 내적 통제자들이 많고 앞으로 담배를 피울 의도가 없는 비흡연가들도 다른 그룹보다 유의하게 내적 통제소재자라고 밝히고 있다.

지인순(1989)의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흡연경험여부와 건강통제위성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연성향이 관련성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흡연행위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을 보면, 서 일(1988)의 한국인의 흡연율과 그 역할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가 있는 학생의 흡연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아 청소년의 흡연율은 친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Krohn(1986)의 연구에서 흡연의 예측인자 중에서 청소년의 반사회성향과 흡연하는 친구와의 관련성이 가장 유의한 예측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Lanese(1972)의 다변수적 개념적 접근 방법으로 청소년 흡연의 예측인자를 밝혀내려는 연구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흡연 할 확률이 9배나 높았으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흡연자일 경우 대상자가 흡연할 확률은 약 30%이며,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비흡연자일 경우 대상자가 흡연할 확률은 단지 0.01%라고 했다. 또한 이 연구에서 검증된 모든 변수중에 친구흡연행위 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유력한 변수라고 밝혔다.

또한 이영숙(1983)은 일부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집단 내의 흡연정도가 개인의 흡연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개인별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교우망속에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수를 기초로 한 '교우흡연지수'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교우흡연지

수가 증가할수록 즉, 친구들중 흡연하는 학생수가 많을수록 흡연행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3개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에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고려하였다.

1) 스트레스 생활사건

본 연구에서는 Yeaworth 등(1980)이 개발한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Questionnaire (ALCEQ)를 이정숙과 조길자(1982)가 국내 고등학생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과 Kanner등(1981)이 개발한 Daily Hassles Inventory를 Baer등(1986)이 청소년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발췌하여 사용한 일상생활사건목록을 기초로 하여 서로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총 70문항으로 신체적 영역 8문항, 정신적 및 영적 영역 27문항, 사회적 영역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았으면 '0'점, 경험하였으면 '1'점으로 처리하여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비조사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위한 신뢰도 계수 α (Cronbach α)는 0.94로 측정되었다.

2) 스트레스 생활사건 인지심각도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지심각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혀 힘들지 않다'에서 '아주 많이 힘들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의 평점을 주어 평가하였으며, 총합의 점수가 0점에서 350점까지의 범위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인지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내·외 통제소재

본 연구에서는 Nowicki 와 Strickland(1973)가 구성한 'Children's Locus of Control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tter(1966)의 통제소재 정의에 근거한 102개의 문항을 40개의 질문형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예비조사에서 문항간 상관관계가 낮은 5문항을 제외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외적 통제소재 성향을 묻는 문항이 23문항이며,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묻는 문항이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적 통제성향 문항은 '그렇다'로 대답하면 1점, '아니다'로 대답하면 0점을 주었고 내적 통제소재 성향을 묻는 문항은 '그렇다'로 대답하면 0점, '아니다'로 대답하면 1점을 주어 각 문항의 점수 합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통제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7점 이상이면 외적 통제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비조사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72로 측정되었다.

4) 또래 영향

친한 친구중 흡연하는 친구수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없다'에서 '모두 다 피운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 흡연

여러 문헌(미국 보건성 조사분류, 1971: WHO 조사분류 등)에서 사용되었던 흡연자 분류 기준을 참고로 하여 흡연빈도, 흡연량을 측정하였고 Ajzen 과 Fishbein (1970)이 제안한 기본구조 즉,행위의도는 명백한 행위를 매개하고 행동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이 된다는 설명에 의하여 흡연의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3개의 항목은 모두 5점 척도로 평가된다. 예비조사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0.76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자료는 먼저 1994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개 고등학교 1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된 질문지는 1994년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학교의 양호교사를 통하여 배부하였고 자가보고형식으로 설문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도구의 신뢰도를 보기위하여 Cronbach's alpha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수,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각 변수의 분포에 대하여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각 변수들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스트레스 경험도와 심각성 인지정도가 흡연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인과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sun3-280(V 6.0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종교적 분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42.6%(123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57.4%(166명) 중에서는 기독교가 36.0%(104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상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56.1%(160명), '중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37.5%(107명), '하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6.3%(18명)정도로 나타났다.

2. 대상자 가족의 특성

집안 가장의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70.2%(203명)를 차지하고 고졸이 23.5%(68명) 순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집안 가장의 직업 분포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상점과 시장 판매직이 51.2%(147명)를 차지하고 경영주 및 전문가가 24.7% (71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직 및 준전문가는 17.1%(49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인 경제수준의 평가에서는 중정도가 86.4%이고 상정도가 10.5%, 하정도가 3.1%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상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양친 생존이 95.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 관계는 만족이 47.1%, 보통이 45.3%로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과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생활사건 경험도와 인지식각도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스트레스 경험도는 그 평균점수가 0.70(범위 0-1), 표준편차 0.17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역별 각 문항의 평균점수를

표 1.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각 영역별 경험도와 인지심각도

영역	범위	평균	표준편차
총 스트레스 경험도	0 - 1	.6955	.1731
신체적 영역	0 - 1	.6961	.2035
정신,정서,영적 영역	0 - 1	.7800	.1786
사회적 영역	0 - 1	.6103	.2265
총 스트레스 인지심각도	1 - 5	1.8984	.6463
신체적 영역	1 - 5	1.8496	.7513
정신,정서,영적 영역	1 - 5	2.2196	.7190
사회적 영역	1 - 5	1.6261	.7680

비교한 결과 정신,정서,영적 영역의 평균이 0.78(범위 0-1)로 3 하위영역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영역의 평균이 0.70(범위 0-1)으로, 사회적 영역의 평균은 0.61(범위 0-1)의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인지정도를 보면, 총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의 평균점수는 1.90(범위 0-5), 표준편차는 0.65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각 문항당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도 정신, 정서, 영적 영역의 평균이 2.22(범위 1-5)로 스트레스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신체적 영역으로 평균은 1.85(범위 1-5), 사회적 영역의 평균은 1.63(범위 1-5)의 순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도와 심각성 인지정도 2 부분 모두 정신,정서,영적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종류와 심각도를 조사한 이정순(1988), 이 재원(1989)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자신감 등의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영역별 심각도에 있어서도 이정숙,조길자(1982)의 조사결과나 박현경(1993)의 조사결과에서 모두 가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도와 마찬가지로 정신,정서,영적 문제 즉, 자신의 가치관이나 지적 문제에서 가장 심각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흡연빈도, 흡연의도, 흡연량

본 연구대상자의 흡연빈도, 흡연의도, 흡연량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흡연빈도, 의도 및 흡연량

구분	빈도(백분율 :%)
흡연빈도	
전혀 피운적 없다.	182 (63.0)
몇번 피워본적 있다.	55 (19.0)
한달에 인회 또는 그 이상	4 (1.4)
일주에 일회 또는 그 이상	8 (2.8)
흡연의도	
전혀없다	179 (62.2)
약간있다	68 (23.6)
보통이다	24 (8.3)
많이있다	12 (3.8)
당연히 피운다	6 (2.1)
흡연량	
전혀없다	213 (73.7)
하루에 몇개피 정도	46 (15.9)
하루에 반갑 정도	15 (5.2)
하루에 한갑 이상	9 (3.1)
하루에 두갑 이상	6 (2.1)
총 대상자 수	289 (100)

흡연빈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평균점수는 1.8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 63.0%(182명)이며 상습 흡연자를 포함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은 37%(107명)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왕기(1990)의 흡연경험의 빈도인 37.1%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내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영미(1991)의 연구결과인 41.1%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흡연의도를 측정된 결과에서는 앞으로 흡연을 계속 하거나 시작할 의도가 전혀 없는 학생이 62.2%(179명), 흡연을 계속하거나 시작할 의도가 있는 학생이 37.8%(110명)로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점수는 1.63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량을 측정된 결과를 보면, 5점 척도로 측정된 평균점수는 1.44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에 몇개피 정도"가 15.9%이며 "하루에 반갑정도"가 5.2%, "하루에 한갑 이상"이 3.1%, "하루에 두갑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흡연친구수와 내·외 통제소재

친한 친구 중에 흡연하는 친구가 전혀 없는 학생이 19.4%(56명)로 나타났으며, "약간있다"로 응답한 학생이 43.6%(126명)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친한 친구 모두가 흡연하는 학생이 4.5%(13명) 정도로 나타났다.

내·외 통제소재를 측정된 결과를 보면, 내적 통제성향과 외적 통제성향을 합한 평균점수(범위 0-35점)는 12.295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적 통제성향(0-17점)을 가진 학생이 87.9%(254명)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적 통제성향(18-35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2.1%(3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대상자들은 주로 내적 통제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스트레스와 흡연율과의 관계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도와 흡연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 유무와 비흡연군, 흡연군과의 관계를 Chi-squair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는 통계학적(P

표 3. 스트레스 경험도와 흡연가의 관계 빈도(%)

구 분	비흡연	흡 연	계	χ^2
무경험	47(16.26)	9(3.11)	56(19.38)	13.08***
경험	135(46.71)	98(33.91)	233(80.62)	
계	182(62.98)	107(37.02)	289 (100)	

*** P<.001

표 4. 스트레스 인지심각도와 흡연과의 관계 빈도(%)

구 분	비 흡 연	흡 연	계	χ^2
상 (235점-350점)	0 (0.00)	7 (2.42)	7 (2.42)	32.11***
중 (118점-234점)	86 (29.76)	75 (25.95)	161 (55.71)	
하 (0점-117점)	96 (33.22)	25 (8.65)	121 (41.87)	
계	182 (62.98)	107 (37.02)	289 (100)	

*** P<.001

<.001)으로 유의하였다. 즉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인지정도와 흡연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인지심각성 정도와 비흡연군, 흡연군과의 관계를 Chi-squair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도 통계학적(P<.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흡연정도에 대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경험도와 심각성 인지정도의 회귀분석

스트레스 경험도,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가 흡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경험도는 흡연에 대하여 약 15%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스트레스 인지심각도는 흡연에 대하여 약 20%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경험도와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의 각 영역별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신체적 영역, 정신·정서·영적 영역, 사회적 영역 중에서 사회적 영역의 표준화회귀계수가 각각 .3322(P<.001), .3630(P<.001)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의 세 영역 중에서 사회적 영역이 주로 흡연정도에 대하여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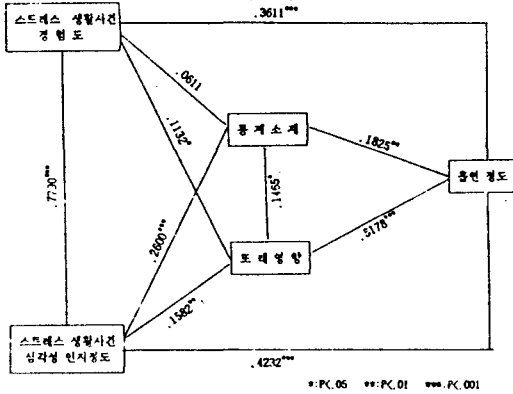


그림 1.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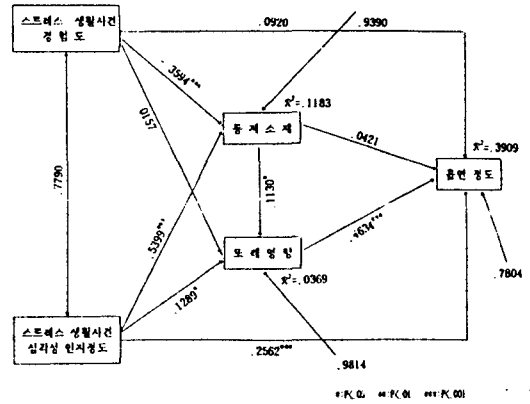


그림 2.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

8.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경험도와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의 상관관계는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r = .7790, P < .001$), 스트레스 경험도와 내·외 통제소재의 상관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r = .06114, P > .05$). 내·외 통제소재와 흡연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r = .1825, P < .001$) 스트레스 경험도와 또래영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r = .11315, P > .05$). 또래영향과 흡연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51784, P < .001$).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와 내·외 통제소재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r = .25989, P < .001$)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와 또래영향간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15824, P < .01$). 스트레스 인지심각도와 흡연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42316, P < .001$). 내·외 통제소재와 또래영향의 상관관계도 비교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 = .14650, P < .05$).

9.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

그림 2는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스트레스 경험도와 흡연정도의 경로는 유의한 인과관

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beta = .0920, P > .05$). 즉 스트레스 경험도는 흡연에 대하여 충분한 선행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경험도와 내·외 통제소재의 경로는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내어 ($\beta = -.3594, P < .001$) 스트레스 경험도가 내·외 통제소재의 선행변수임을 밝히고 있다. 내·외 통제소재와 또래영향간의 경로는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다 ($\beta = .1130, P < .05$).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와 내·외 통제소재의 경로는 비교적 강한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beta = .5399, P < .001$)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는 내·외 통제소재의 강한 선행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와 또래영향과의 경로는 보통 정도의 연결성을 보여 ($\beta = .1289, P < .05$) 또래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 정도는 선행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래영향과 흡연정도의 경로는 강력한 연결성을 보이며 ($\beta = .4634, P < .001$), 흡연정도에 대하여 또래영향은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와 흡연정도의 경로는 비교적 강한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 ($\beta = .2562, P < .001$). 따라서 흡연정도에 대하여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는 선행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정도 간의 상관관계와 그 영향력을 본 결과 스트레스 생활사건

을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흡연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경험도는 흡연에 대하여 약 15%,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는 흡연에 대하여 약 20%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sen은 인간이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때 담배 소모량이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경희(1973)등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수시절 흡연학생의 흡연동기는 정신적 갈등이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재수시절에 오는 정신적 갈등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에서 높은 흡연율을 나타낸다고 그 원인을 찾고 있다.

문성원(1991)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이 전반적으로 문제중심 대처행동보다는 정서중심적 대처행동에 편중된다는 결과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인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흡연정도의 높은 상관성은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건설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방향이 아니고 흡연과 같은 일시적 감정해소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의 각 영역중 가장 많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은 정신, 정서, 영적 영역이었으나 대처반응으로서의 흡연정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영역은 사회적 영역 즉, 주로 가정문제와 대인관계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Lazarus등(1980)이 보다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행동을 하고,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정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대상자들이 다른 영역보다도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그 대처행위를 흡연과 같은 소극적 대처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경험도,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 또래 영향, 내·외 통제소재의 네가지 변인중에서 흡연정도에 대한 선행변인으로는 또래 영향요인과 스트레스 심각성 인지정도 요인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입증되었다. 다시말하면, 스트레스 경험도와 흡연정도의 관계는 상관관계는 높으나 결코 직접적 인과관계도 강하지 않았고 내·외 통제소재요인과 또래영향요인을 매개로 간접적 인과관계도 강하지 않았다.

이는 Lazarus와 Folkman이 주장한 스트레스를 보는 관계론적 관점에서 스트레스로 지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 인지적 평가라는 단계를 거쳐서 대처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논리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대처행위로서의 흡연은 스트레스 상황의 양적인 요인보다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에 의하여 더 강하게 영향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전략은 청소년들이 잠재적 스트레스(Stressor)에 대하여 그 인지적 평가부분에서 스트레스정도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또한 그 문제의 통제가능성을 보다 높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것이 청소년의 흡연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 영향은 흡연에 대하여 강력한 선행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내·외 통제소재와 비교하여 흡연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변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Krohn(1986)의 연구에서 흡연의 예측인자 중에서 흡연하는 친구와의 관련성이 가장 유의한 예측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Lanese(1972)의 연구에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유력한 변수는 친구 흡연행위 변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흡연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또래 영향변인에 내·외 통제소재와 스트레스 생활사건 심각성 인지정도가 그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스트레스를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외적인 통제성향을 갖기 쉬우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청소년일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가 쉬워지며 따라서 흡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강한 고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교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전략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스트레스와 흡연정도와와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볼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였을 경우 이를 보다 건설적이고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경험도 보다는 스트레스 인지심각도가 흡연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과 인과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여러 생활 환경으로부터 당면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하여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좀 더 낮게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흡연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새책, 흡연을 설명하는 변수 중에서 또래 영향변인이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 볼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금연교육은 전체집단에 대한 일반적 강의식 교육방법보다는 교우관계를 고려한 소그룹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그룹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상원 : 인지적 평가와 사회적 지지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2. 박현경 : 서울시내 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정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3. 백기청 :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4. 서일 : 한국인의 흡연률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역학회지, 10, (2), 131-137, 1988.
5. 김정희 역 :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대광문화사, 1991.
6. 윤혜정 :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7. 이영숙 :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 (1), 37-56, 1983.
8. 이정숙, 조길자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변화사건과 그 척도, 중앙의학, 43(2), 109-122, 1982.
9. 이해숙, 김일순, 서일 :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 (1988 - 1989), 한국역학회지, 11, (2) 1989.
10. 이 훈구 : 내·외 통제성-한국 초·중·고학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5, 41-59, 1980.
11. 정은주, 손진훈 : 학생용 내외통제척도 제작 연구,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우트, 10(2), 1-15
12. 주왕기 : 약물남용실태조사, 한국 약물남용 연구소, 1993.
13. 지인순 : 중학생의 흡연수용태도를 결정하는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1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재 : 청소년 약물사용실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문화체육부, 한국 청소년학회, 1993.
15. 한국 표준 직업 분류 : 통계청, 1991.
16. Botvin,G.J., Anna Eng : A Comprehensive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 JOSH, 1980.
17. Botvin,G.J,et al. : Preventing the onset of Cigarette Smoking through Life Skills Training, Preventive medicine 9,135-143, 1980.
18. Baer,P.E,et al. : Stress, Coping,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 Alcohol Us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5), 1987.
19. Bonaguro, J.A. : Self-Concept, Stress Symptomatology, and Tobacco Use, 1987, JOSH, 57, (2), 1987.
20. Cartwright,A., Martin,F.M. :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of Smoking Habits, Lancet, 2, 1959.
21. Castro,F.G.,Maddahian,E,et al. : A multivariate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273-289, 1987.
22. Clarke, J.H., Macpherson, B.V,et al. : Cigarette smoking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253-259, 1982.
23. Dielman,T.E., Campanelli,P.C., Shope,J.T., Butchart, A.T. :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self-esteem,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s correlates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 (2) 207-221, 1987.
24. Dohrenwend,B.S. : Life events as stressors :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167-175, 1973.
25. Foss,R. : Personality, social influence and cigarette smoking,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2), 229-89, 1973.
26. Kissen,D.M. : Psycho-social factors in cigarette smoking motivation, Medical Officer, 104, (36), 1960.
27. Kobasa : Commitment and coping in stress resistance among lawy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82.
28. Larry, A. Tucker :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lifestyle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 classifide according to cigarette smoking intention status, *JOSH*, **55**, (4), 1985.
29. Nowicki, S., Strickland, B.R. :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1973.
 30. McCaul, K.D. et al. : Predicting adolescent smoking. *JOSH*, August, 1982.
 31. Mendez, L.K., Yeaworth, R.C. et al. :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perceptions of life change events. *Nursing Research*, **29**, 6, 384-388, 1980.
 32. Mettlin, C. Peer and other influences on smoking behavior, **16**, (9), 529-536, 1976.
 33. Newcomb, M.D., Huba, G.J. et al. :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among adolescents :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00-415, 1981.
 34. Skinner, W.F. et al. : Social influences and constraints on the initiation and cessation of adolescent tobacco us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8**, (4), 353-376, 1985.
 35. Williams, A.F. : Persona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igarette smoking among young teenager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347-380, 1973.